

2024년 세계 10대 뉴스

“전쟁과 세계질서 격변으로 보낸 한해”

2024년 지구촌은 우크라이나전과 가자전쟁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경제, 안보에서 미국 우선주의 부각과 AI, 암호화폐, 우주사업의 부상 등 가속될 세계질서 격변을 예고했다. 연합 뉴스에서 선정한 2024년 세계 10대 뉴스를 통해 한 해를 되짚어 보자.

1.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귀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만 78세에 취임하게 돼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역사도 새로 쓰게 됐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선거 운동을 치른 그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피격돼 피를 흘리는 등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비롯한 중대 고비를 잇달아 넘기며 극적으로 재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뒤흔친 극심한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 등을 돌린 미국 유권자들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로 파고 들었다.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 첫 아시아계 대통령, 두번째 흑인 대통령이라는 미국 헌정사의 새 기록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첫 임기 때문에 '미국 우선'을 강조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2기엔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 우크라이나·중동' 출구 없는 두개의 전쟁...러 '핵사용' 문턱 낮춰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서방과 권위주의의 진영을 갈라치며 3년째 계속됐다.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하마스간 가자 전쟁은 이란과 헤즈볼라 등 친이란세력 등이 가세하면서 1년 넘게 지속됐다. 우크라이나전은 예기치 못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될 갈림길



에 섰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교착을 뚫고 영토 탈환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했다. 북한은 난처해진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쿠르스크주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로 인해 국제전으로의 비화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파병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교전은 한층 격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허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3. 시리아에 봄 올까...내전 13년만에 반군 깜짝 승리



중동의 또다른 화약고였던 시리아에서 13년째 피비린내 나던 내전이 반군의 깜짝 승리로 귀결되면서 중동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53년에 걸쳐 2대째 철권통치를 이어온 알바사드 정권은 11월 27일 시작된 반군의 파죽지세에 줄줄이 주요 도시를 내

주다가 11일 만인 12월 8일엔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함락되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바샤르 알바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비행기를 타고 급거 피신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24년간 학살자이자 독재자로 군림하던 권좌에서 끝내 쫓겨나 퇴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무차별 유희진압하며 내전의 불씨를 댕긴 아사드 정권은 50만 명 이상의 희생자와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 채 폐허가 된 시리아를 반군의 과도 정부에 넘겨주게 됐다. 내전의 종성은 일단 뚫었지만, 그간 제각각 섣불리 따라 반군을 우회 지원해온 미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열강 3개국도 과도기의 시리아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무주공산에 깃발을 꽂으려 혈안이 됐다.

4.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후속조치 관련 한일 갈등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한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원동의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등재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해준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현장 주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유네스코 회의에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도섬에 설치된 전시 시설에는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시물에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민족 차별적 표현마저 포함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시물 개선을 요구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9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KAPC 개혁신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5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신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5 학년도 Zoom 겨울학기 특강을 실시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집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집하는 목회 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선교 장학금(선교 사역자에 대해서는 50%의 장학금이 지급됨)

2025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예수님의 비유 (Parables of Jesus)

○ 교 수: 최갑종박사(전 백석대학교 총장, 신학학 Ph. D)

○ 일 시: 2025년 1월 6-8일, 13-15일

오후 7시~9:30분(서부시간)

최갑종 박사

· 고신대학교 졸업

· 고려신학대학원 졸업(BA, M.Div.)

· Reformed, Princeton 신학대학원 졸업(MA, Th.M.)

· Ilif 신학대학원, Denver 대학원 졸업(Ph.D. Biblical Studies)

· 백석대학교 총장(2012-2017) 및 신학학 교수(1992-2017) 역임

저서

『예수님의 비유 연구』「나사렛 예수」(CLC)「주기도론」 「마태복음 산책」(이레서원)

「오직 믿음만으로」(평명복스)「칭의란 무엇인가」(새물결플러스) 등 20 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626-675-8010)

2025학년도 봄학기

○ 기간: 2025년 1월 27일 - 5월 14일 (도합 16주)

(1) 개강예배

○ 일시: 2025년 1월 27일(월) 오후 7시

○ Zoom ID#: 202-901-1366

(2) 개설과목 시간표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General Epistles (공동서신)	정인채교수 Ph. D
Tuesday (화)	Biblical Hebrew II (히브리어 II)	김동진교수 Th. D
Wednesday (수)	Ecclesiology & Eschatology (교회론 및 종말론)	김선종교수 Th. D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신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시론

기다리는 사람들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1953년 프랑스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는 희곡 작가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뮈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라는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 연극은 베케트의 대표작이자 부조리극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부조리극이란 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조리에 맞지 않는 연극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말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된다고 하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연극이다. 연극 내내 어떤 줄거리도 없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명의 뜨내기 사내가 나와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 이해할 수 없는 허튼소리를 내뱉는 것들이 극의 전부다. 이 극이 허무맹랑한 것은 그들 둘이 매일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도 기다리는 고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울지 안 울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난다.

연극 자체가 그런 부조리한 극이다 보니 관람자들의 평가도 극에서 극을 달린다. 극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라며 고개를 흔들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펜던트지는 “영국 연극계 선정, 20세기 최고의 희곡”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연극에 열광하였다. 한국에서도 수없이 많이 공연되었고, 최근까지도 공연되었으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관람하였다. 그 중에 가장 이 연극에 열광한 사람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중범죄자 교도소로 악명 높은 샌퀀틴 교도소의 죄수들이었다. 1957년에 교도소 측은 단지 극에 여자들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을 허락했었는데 그들은 기립박수를 쳤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고도는 사회다!” “고도는 자유다!”를 외쳤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고 난해하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죄수들에게조차 감동을 끼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70년이 넘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부조리한 극을 보러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과 그 극을 병치시키기 때문인지 않을까. 죄수들은 감옥에서 나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무수한 의미 없는 시간을 버티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의 현실이고 미래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인들은 삶의 무의미 속에서 뭔가 내일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기다림 자체는 좋은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였지 않은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되며 기다리는 자체는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해도 좋은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지난 3일 저녁 우연히 TV 앞에 앉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대통령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들었나,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나, 나는 그 황망한 순간에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잠시 당황하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 내란죄로 몰고 가며 어서 속히 현 정권을 종식시켜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야당과 탄핵을 당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줄다리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끈 끝의 성취를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이다. 한국은 남과 북으로, 그리고 유독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지독히도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 착박하기 그지없을 것 같다. 그러나 힘을 내시라. 주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지 않는가.

크리스마스를 가능케 한 제사장의 아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구주의 혈통을 구해냈다



북극 지역 어느 산 아래에 저장고가 하나 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한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멀리 떨어진 차가운 곳에 둔 것이다. 차가운 온도도 보존에 도움을 준다. 이 저장고 안에는 전 세계에서 모은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다. 금이나 은, 동전이나 현금이 아니다. 보물은 씨앗이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농업적 다양성의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자. 전염병이 지구상의 모든 밀을 다 파괴한다.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사고 또는 사악한 공격으로 노르웨이의 씨앗 저장고가 화염에 휩싸인다. 그리고 외로운 한 명의 일꾼이 밀 한 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운명을 걸고 있다. 그 밀은 다름 아니라 인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유전 코드를 품고 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11장에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만난다. 그녀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매우 독특하지만 중요한 행동으로 언급된 존재이다.

거의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복수자인 예후는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령했다(왕하 9:6-7, 27). 그 결과 아하시야의 악한 길은 끝났지만, 그의 독하다독한 어머니 아달라의 악행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이 기능 장애가 있는 딸(8:26)은 여왕이 될 기회라는 생각에 왕좌를 놓고 경쟁하던 자신의 손주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11:1). 정치 권력에 대한 그녀의 우상 숭배적 욕망은 가족의 희생까지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아달라가 손주들을 모두 몰살시키기 전에, 타락한 아하시야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역하 22:11)인 여호세바가 개입했다. 여호세바의 용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상기시킨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거 같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세바는 조카 요아스를 빼내 성전 단지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은 그를 입양했다. 그리고 요하스의 할머니가 통치하는 공포의 기간 내내 그들은 요아스를 비밀리에 보호했다. 이모인 여호세바는 요아스에게 유일한 어머니가 되었고 삼촌은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왕하 12:2). 요아스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비밀리에 그 모든 것이 요아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궁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왕으로부터 양육되는 것보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부부에게 양육되는 것이 훨씬 나았다.

칠 년 동안, 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신실한 자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가슴 아프고, 희망을 죽이는 환상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좌가 영원히 확립될 것이며, 그의 씨 중 하나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다(삼하 7:16). 그러나 이제 모든 다윗의 씨가 멸절되었고 이세벨의 딸이 왕좌에 올랐다. 사람들이 아는 한, 다윗 왕

족의 모든 후손은 몰살당했다.

그 사실이 주는 의미는 파괴적이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일곱 살이 된 요하스는 마침내 다윗의 왕좌를 계승할 정당한 상속자로 온 나라에 알려졌다. 유다에 남은 경건한 자들은 기뻐했지만, 아달라는 끝까지, 마침내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요아스는 40년 넘게 통치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유다에서 개혁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요아스의 손자 웃시야는 결국 다윗의 왕좌를 이었고 우리 구주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마 1:9).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르고 우리는 마침내 약속된 아이를 만났다. 그도 요하스처럼 성전을 집처럼 느꼈다. 그가 처음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9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자녀가 허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아가페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1. 지원 요건

-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및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이종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으로 만 55세 미만인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안수 증명서
- 최근 설교 2편 (온라인 링크)
- 추천서

3. 서류 제출 마감일 2025년 2월 10일

4.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agapenskim@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첨부 file 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장로교회 청빙위원회

90 Cooper Ave. Iselin, NJ 08830
(908)463-1577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목 사 ☐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1면에서 계속>
5. 일본 집권 자민당, 12년만에 중의원 단독 과반 봉기

장기 집권해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이 무너졌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당 지위는 지켰지만, 연립 공명당 의석 24석을 합쳐도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2009년 선거 때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철저부심한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최근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 '일강다약(一強多弱)' 구도를 연출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여소아대 상황도 맞게 됐다.



6. AI, 본격 사용단계 진입...새로운 산업혁명 예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해였다. 2022년말 생성형 AI 챗GPT 열풍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늘려온 AI 기술은 올해 들어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도입됐고 폭발적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 웨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 중 88%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 과정에 AI 기능이 통합된 곳도 24%였다. 지난 11월 미국 주요 주가지수인 다우지수에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빠진 자리에 AI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편입된 것은 반도체 업계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지난 10월에는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구글 AI 딥마인드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48) 등 3인방이 노벨화학상까지 거머쥐면서 본격적 AI 시대의 도래를 확인시켰다.



7. 전 세계 금리인하 시작...경제정책 방향 대전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연준은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스몰컷)하며 인하 행진을 이어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6월에 약 2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ECB는 9, 10, 12월에도 세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영국은 8월 기준금리를 내리며 통화 완화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도 6, 7, 9, 10월에 이어 12월 다섯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특히 10월과 12월은 모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이었다. 2020년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단행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이어지자 각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며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가, 통화정책을 울려 람부터 완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8. 트럼프 승리에 날아오른 비트코인...10만달러선 사상 첫 돌파

정부의 통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운 대안 화폐라는 평가와 함께 투기적 자산이란 이중성을 지닌 비트코인의 가치가 탄생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개당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된 지 약 한 달만인 2024년 12월 5일 10만 달러선을 넘어 장중한 때 개당 10만4천 달러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다. '친(親)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랠리를 이끈 결과다. 이후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선 안팎을 넘나들고 있으나, 호재만 있으면 가파르게 오르며 강세를 유지 중이다. 비트코인 강세에는 같은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진통 끝에 승인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전 세계 주요국 집권당 선거 참패...사방 극우 약진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 '슈퍼 선거의 해'에 지구촌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쏠렸다.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 큰 주요국에서 줄줄이 집권당이 선거에 참패, 향후 국제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배경에는 물가 급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악화, 반이민 정서의 확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초박빙'이라던 안팎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해 미국 내 정치 구도가 뒤집혔다. 7월 영국 총선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고, 프랑스 총선에서는 범여권이 2위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강경 우파 정치세력이 의석을 불러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고, 9월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나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극우당이 승전고를 울리는 등 유럽 전반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으며 한국의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친 것도 세계적인 집권당 패배 흐름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프랑스의 총리 불신임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어 2025년에도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열려...탐사 경쟁 가열

2024년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 미국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슨이 이끄는 민간 우주팀은 지난 9월 10일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최초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 우주 비행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국 우주 탐사 경쟁에 민간기업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지구 궤도를 향한 로켓 발사 시도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는 순수 탐사보다는 달에 매장된 자원 선점, 우주관광 보편화, 심우주 진출 등을 위한 실용적 기술 경쟁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NASA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지난 10월 발사했다. 중국은 6월 '창어 6호'를 통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 채취에 성공했다. 스페이스 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다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마치고 수직 착륙에 성공했다. 특히 발사탑의 '젓가락 팔'을 사용, 추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로켓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인류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는 2월 달에 착륙했다.



목회단상

레밍효과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 레밍은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설치류의 일종으로, 다리가 짧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으며 햄스터와 비슷한 종류입니다. 유명한 “하얀광야”라는 디즈니 영화에서 집단으로 절벽에서 물위로 떨어지는 죽는 장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아직도 왜 레밍이 앞서 가는 한 마리를 따라 집단으로 물속에 뛰어드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론들을 할 뿐입니다. 레밍은 3~4년에 한 번씩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떼거리 본능이 있어 어떤 한 마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면 다른 쥐들도 무조건 따라 붙어 그 뒤를 따라 갑니다. 레밍은 곡선보다는 주로 직선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벼랑이 나타나도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밀려오는 쥐들로 인해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레밍처럼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다 실패와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 레밍 효과라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다수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라 거친 세파를 거슬러 가야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라는 열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불신을 따르던 2백만명의 사람들이 광야의 허허벌판으로 내몰려 40여년간 광야 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받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다수의 편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 예수님만을 바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자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레밍이 낭떠러지에서 집단적으로 떨어져 죽는 이유 중 하나가 근시라는 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코앞만 보고 달려가다 낭떠러지에 도착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현실도 직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잠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기에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믿음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레밍이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좌우를 살피고 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바라보며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2인 3각의 경주입니다. 나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길이란 주님이 정해주신 성경이라는 디렉션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삶이자 제자의 삶입니다. 정해진 목표만을 향해 돌진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한발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 옆을 살피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 가를 확인하며 가야 합니다. 레밍처럼 집단 이기주의나 다수 의견만을 쫓거나, 근시안 적인 눈으로 살아가거나, 목표 지향적 스피드만을 추구한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2025년 하루하루의 삶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5년 봄학기 신, 편입생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망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은.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에도, 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를 달랠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

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고독을 느낄 때, 즉 영

혼이 갈할 때, 목마를 때 수도 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낀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의 고백을 담은 그의 책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은 아직도 목마른 이들을 참 생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갈증을 겪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고

독을 느낄 때도 있고, 실패의 우물을 파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막연히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유대 광야의 여름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60도(화씨 104도에서 1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

려고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물을 찾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슴에게 물은 갈증을 풀어주는 이상의 의미, 즉 생존의 필수인 생명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분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수를 마시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축복,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환난 중에도 낙심과 불안을 몰라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42:5)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사는가는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행복의 지표입니다. 태어나 보니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옆구리로 총알들이 날아오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한해를 지나고 보면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국이라고는 해도 국권을 빼앗긴 나라, 국민 전체가 타국의 노예가 된 나라, 아무리 보아도 앞날에 그 어떤 희망의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된다는 것은 실로 날 때부터 슬픔을 선물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한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는 왕을 모신 나라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자라고 했는데, 아마 심각하게 척추와 신경이 손상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자 쪽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했는데 이번에는 병자가 먼저 병 낫기를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즉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고 "안수" 하심으로써 그녀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처럼 중한 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으니 분명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 병이 낫게 된

순간에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회당장"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도 하고서도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도 않고 그곳에 있던 다른 "무리" 앞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일

할 수 있는 옛새' 중에 와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분"을 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회당의 예배와 기타 행사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자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도 밝았을 것이고, 따라서 안식일 성수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바로 그런 외적, 법적, 제도적인 사고방식에 스스로 꽂 막혀 버린 까닭에 그는 실로 중대한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지적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 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가족들은 돌보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가족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 다. '가족의 등에 짐을 싣지 않는 한 그 가족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라든지 '여물통에 물을 부어 주고 가족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물통을 손에 들고 직접 가족의 입에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따위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민감한 안식일 성수 문제가 자기네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할 만큼 그 집성들을 아끼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그들은 무려 십팔 년 동안이나 병마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집성이 아니라 사람이고, 이방인도 아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며, 더구나 안식일의 회당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고 있던 그 신실한 여인에 대하여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냉담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서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엄청난 무관심과 배타심과 멸시의 벽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

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변형하여 온 세상을 정복할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속하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선포를 받고도 아직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 수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숫자입니다.

통상 국가의 국력은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의 수와도 비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국력과 관련계되므로 심히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국민 개인의 평균 수입은 높다 해도 총인구가 몇 백만 명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가 GNP는 상대적으로 낮아도 16억의 국민을 가진 중국과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것처럼 늘 소수의 백성만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세상의 열국들 앞에서 때때로 힘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절대 그렇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 한 알이니까 물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는 나무는 아니지만, 하얀털 이 겨자씨가 자라면 4미터 정도의 높이까지 이르러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만큼, 즉 동지들을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시는 요점은 바로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 감춰어진 엄청난 '변성의 능력'입니다. 새의 한 입 먹이겨져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씨가 오히려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의 씨를 마시는 너무나 위대한 왕이십니다. 즉시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전지전능 하심을 동원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성도

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는 영적 보금자리를 펼쳐 주기에 넉넉할 만큼 그 가지들이 무성하게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포하고 있는 '변화시키는 힘'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루 서 말"이란 상당한 양의 곡식 가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할" 힘이 단 한 숟가락의 누룩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력은 그 밀가루의 본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즉 오직 누룩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밀가루는 빵이라는 다른 형태의 물질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인류에게, 또한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 역시 그러합니다. 복음이란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재력이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지식이나, 끝없이 발전하는 문화나 사회조직들과 비교해 볼 때, 실로 그것들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그것들을 상대하려고 그 앞에 설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셨지만, 초기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빌라도의 눈에는 그 비참한 물골의 죄수를 왕으로 모신 왕국이 엄청 초라할 것이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 로마제국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백성들을 두고 있는 지상 최대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왕국인 교회만이 각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기적적인 변화와 '영생'이라는 최고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이 속하게 되는 단체나 조직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직장에 가게 되느냐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애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일단 강하고 부요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약소국가의 국민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한 백성 각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속해 있는 교회는 그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인류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번창하고 끝내 온 세계를 정복하고야 말 이 강력한 하나님나라 안에서 금세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살신인 영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설령 두루한 일들이 일어날 지라도 '그 주님의 날'에 품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변형하면서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말 종말 이후에도 든든히 서 있을 영원불변의 나라입니다. 2024년 한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를 맞이해서 더욱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ng78us@yahoo.com

아는게힘이다!
가치관 전쟁

예수님의 탄생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넷플릭스 어린이 가족 만화영화

Netflix에서 크리스마스 Family animation으로 나온 "That Christmas"라는 만화영화 리뷰: Netflix (넷플릭스)에서 올해 12월 초부터 방영된 "That Christmas (번역: 그해 크리스마스)"는 2024년 10월 19일 BFI 런던 영화제에서 초연되었고, 2024년 12월 4일부터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장르는 "Christmas fantasy comedy 크리스마스 판타지 코메디"로 소개되었으며 Rating은 PG로 어린이/가족 만화 영화로 분류되었으며, 세상 영화평론가들로부터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크리스천 영화평론가들로부터는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TVNEXT에서 완전히 공감하며 그 이유 들을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작가와 배경: 먼저, That Christmas 는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That Christmas 책은 매우 유명한 저자이자 영화감독으로도 알려진 Richard Curtis(리처드 커티스)가 쓴 책으로, 넷플릭스의 That Christmas 각본(screenplay)도 리처드 커티스가 제작하고 영국 BFI의 Peter Souter가 공동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리처드 커티스가 적은 각본으로 유명한 영화들은 Love Actually, Four Weddings and a Funeral, and two Bridget Jones movies 같은 주로 로맨스 코메디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로맨스 코메디 안에는 대부분 반기독교적인 내용 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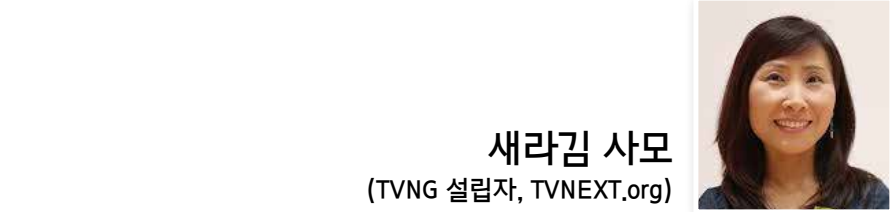
특별히 Love Actually 에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을 미화시키고 재밌고 즐겁게 표현한 것들을 읽을수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That Christmas 의 각본에도 "LGBTQ 내용 들을 더 확실하게 넣으려고 했다"는 그의 최근 인터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That Christmas 만화 시리즈 문제 및 하이라이트:

처음에는 순진한 아이들 애니메이션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내용을 볼수록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내용보다는 재미 위주이며 특별히 교사와 학부모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폭폭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은연중 계속 나옵니다. 웃기고 폭폭하게 나와서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어린 나이일수록, 모든 것은 그들의 두뇌와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고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That Christmas 시리즈 중, 가장 큰 문제는 "After school"이라는 시리즈에서 나옵니다.

성경 속의 성탄절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 주위에 나오는 모든 주요 인물들을 다 불경스러운 사람들로 대체하고 매우 왜곡된 크리스마스 내용을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연극으로까지 표현하게 했다는 것, 무엇보다 성경의 본질, 생명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왜곡시킨 악한 의도로 인해 크리스천들과 가톨릭까지 Netflix 구독 취소(cancel)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fter School 시리즈에서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발표하는 날, 교사가 제일 먼저 한 여학생을 데리 학부모들 앞에 나와서 다음처럼 매우 woke(반기독교 이념)한 첫인사를 합니다.

"학부모님들, 예수는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지루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조?" "(예수)그분은 유행하는 팝송이나, 기후 변화(Climate Change)나, 또는 채식주의자와 다문화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탄 축제를 원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연극 속에서 연기할 내용처럼 말이죠..."라고요. 한 예로, 어린이 연극 속에서 아이들 연극 중, 동성녀 마리아를 맡았던 학생이 매우 비도덕적이고 사탄숭배자라는 루머를 안고 있는 팔가수 마돈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이 나태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열창했습니다.

또한, 마돈나의 "파파 돈 프리치 - (번역: 아빠 제발 내게 설교해 그만해요)"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결국은 10대 소녀가 나태를 고려하는 주인공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에서는 3명의 동방박사들(wise men) 대신 3명의 '현명한 여성 wise women'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성녀 마리아 역할을 맡았던 십대 학생이 임신한 아기를 없앤다(낙태)는 의미로 갑자기 수박이 학생 배에서 떨어지면서, 주위 사람들 얼굴과 몸에 터진 수박이 불는데, 그 색깔이 마치 낙태당한 태아의 피처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였던 예수님을 뱃속에서 낙태하는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연기하게 한것이기에 참으로 끔찍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가 방영중인 That Christmas 시리즈 중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표현한 크리스마스는, 한

마디로 신성모독이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탄생일에 "낙태"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도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연기로 표현하게 한것은 기독교에 대한 매우 큰 무례이고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적 건강에도 선을 한참 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들로, 이번 넷플릭스 작품은 신성 모독적인 표현으로 가세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까지도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laze의 기여자인 Allen Mashburn은 부모들에게 "부모님, 아직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념, 도덕, 세계관을 다시 쓰려고 한다..." 넷플릭스 플랫폼 구독을 취소할 때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맺는말: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낙태, 트랜스젠더주의, 심지어 사탄 주의를 조장하는 반기독교 영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넷플릭스의 특성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의 내용이 점점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혐오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그의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장소에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어떤 말로도 글로도 형용할수없는 온몸과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위의 은혜며 기적보다 더 기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날인지를 계속 배워도 절대 too much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Netflix에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확실한 것은, 여러 차원에서 기독교를 모독했을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감히 조롱하고 예수님을 낙태한 것처럼 연기한 어린이 연극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Netflix 구독을 취소하거나 보이콧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시무장로를 은퇴하고 80세 된 노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치매가 올까 봐 매우 겁이 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 리저월드 박장로

노화 예방법

A: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에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에기에 노후 정신 및 육체 건강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의 "70세의 정답"이란 책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노화를 멈추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콩이나 낫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이 되면 고기 섭취가 필요한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재료로 뇌를 활성화 한다고 한다. 콩으로 만든 낫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콩은 뇌 건강으로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Brain food)라고도 불리는데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레시틴이 콩에 풍부합니다.
2) 뇌의 인지장애 예방을 위해 씹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씹을 자주 씹는 것이 좋다. 씹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국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1.85배나 높다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인지 장애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살려면 돈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껌이나 오징어나 간식으로 자주 씹는 것이 뇌건강을 지켜낸다. 세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3)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심리치료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씬으로서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 고령자일수록 외모관리가 중요하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대체로 건강하다.

4) 공부하는 인간의 수명은 연장시켜 준다. 뇌를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단연코 공부이다. 공부는 뇌뿐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 준다. 사람은 머리를 쓰는 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동물이다.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55-85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알코올 배설 양기등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지능 테스트 성적에서 상위 50에 들어간 사람이 하위 50%보다 수명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일수록 더 장수한다는 뜻이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교회 성경공부에 가서 공부하면 뇌기능이 발달한다. 배우는 사람이 오래 산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배: 오전 10:30분
영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 (Ext.),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례기도: 오전 05:45

Tel: (718) 2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02:00
영양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문화: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kfcby.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

Tel: (516) 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청년예배: 오후 2:3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화: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66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기도: 오전 1:30
세례기도: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dogod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금요예배: 오후 8:00
전교인복합선교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찬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종교기도회: 매일 낮에,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 (604) 6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 S.Paulo Cep 01528-01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5:45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소금과 빛된 소명”

연말이 되면 분주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온갖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새겨야 합니다. 이것

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이 포함됩니다. 국가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교회는 영적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두 권위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되 공통적으로 하나

님의 도덕적 기준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거나 공공의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를 목격해 왔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헌법적 가치나 사회 질서를 벗어나는 통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이를 분별하고 공적인 비판을 제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막아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질서 있는 행동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의 정책이 공공의 정의를 훼손하고 헌법의 가치를 벗어나다면 이를 분별하고 바로잡기 위한 “질서 있고 덕스러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삶을 토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연말을 맞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중보의 기

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상황에 맞서 공공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반드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말의 시간은 우리가 다시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개인의 삶에서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파킨슨병으로 사역 마무리… 부활 소망 품고 고통 극복할 것”

“파킨슨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제 공적 임무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으로 고통스럽진 않습니다. 신하신 주님의 부활이 고치지 못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복음주의 신학자 DA 카슨(78·사진)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TEDS) 명예교수가 올 초부터 앓은 파킨슨병 투병 소식을 공개했다. 미국 복음연합(TGC)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돈 카슨을 위한 기도’란 게시물에서다. TGC는 이날 해당 게시물과 자체 팟캐스트(온라인 음성 방송)로 카슨의 근황을 전하며 그가 지난 11월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ETS)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TGC 공동 창립자인 돈 카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로 시작하는 이 게시물과 팟캐스트 영상에 따르면 카슨 교수는 아내를 통해 TGC 실무진에게 전달한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이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는 파킨슨병 진단 이후로도 강연을 계속했지만 몸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고 인지 장애도 동반되면서 현재 교회 장로직을 제외한 모든 공적 자리와 사역에서 물러났다. 카슨 교수는 “몇 주 전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가 2008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 대통령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아내가 홀로 제 집을 정리하지 않도록 책과 각종 도구를 (스스로) 정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TGC 실무진은 공동 창립자로서 19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그의 공헌을 기리며 패유를 기원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에서 “주님께서 카슨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길 함께 기도해달라”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고 전했다.

카슨 교수는 2005년부터 팀 켈러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설립목사, 존 파이퍼 베들레헴침례교회 목사 등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 및 신학자와 함께 TGC를 이끌어왔다. 캐나다 맥길대와 센트럴배пти스트신학교를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부터 40년간 TEDS에서 신약학 교수로 일했으며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순에 잡히는 신약 개론’ ‘바울의 기도’ 등 200여 권의 책을 집필 및 공저했다.

미국도 정치적 양극화 심각 “복음주의자 역할 필요”

미국 크리스천들도 ‘정치적 양극화’를 2024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며 양극화가 격해지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닿은 부분이다.



미국 크리스챤티투데이(CT)는 지난 20일 ‘2024년 톱 뉴스 12개’를 선정했다. CT가 뽑은 뉴스 중 첫 번째는 ‘선거를 둘러싼 양극화와 분노’였다. 올해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연방의회 선거와 12개 주 주지사 선거 등을 진행했다.

C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정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기독교인 사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동시에 기독교 단체와 상담사들이 이런 갈등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T는 양극화 외에도 ②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 ③델러스 대형교회 스캔들 ④글로벌감리교회 창립 ⑤낙태와 IVF를 둘러싼 법적 문제 ⑥영국 성공회 스캔들 ⑦파리올림픽의 기독교 선수들 ⑧허리케인 헬렌 ⑨남침례교협회(SBC)에 대한 연방정부 조사 ⑩이스라엘-하마스 전쟁 ⑪대형 일식 ⑫아이티의 폭력 등을 주요 뉴스로 꼽았다.

‘글로벌감리교회(GMC·Global Methodist Church)’가 지난 9월 코스타리카에서 창립총회를 연 뉴스는 네 번째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 동성애 이슈 등으로 갈등을 빚다 감리교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GMC가 웨슬리언 전통을 따르고 부흥시키려는 열정이 묻어난다고 봤다. CT는 파리올림픽에 참여했던 기독교 선수들도 주목했다. CT는 “경기 후 함께 찬양했던 피지 대표팀과 수어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전한 브라질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금메달을 딴 후 찬양을 불렀던 독일의 투포환 선수 등을 기억하자”면서 “올림픽을 통해 복음과 신앙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개기일식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CT는 “지난 4월 8일 있었던 개기일식 때 미국 내 여러 교회가 자연현상에 의미를 둔 행사와 전도 계획을 했다”면서 “미국 텍사스에서 메인까지 이어지는 개기일식의 경로를 따라 교회들이 빛과 어둠, 세상 속의 복음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 이시바 日총리, 성탄예배 참석… 취임 후 첫 교회 방문

크리스천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이시바 총리가 도쿄도 지요다구의 후지미초교회를 방문해 성탄예배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지난 10월 1일 총리 취임 이후 교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후지미초교회에서 1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시바 총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4대째 이어온 크리스천이다. 일본기독교단 소속이며 외증조부인 가나모리 미치토모가 세운 돗토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태평양전쟁 전시 내각에 의해 모든 교파가 하나로 통합됐지만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장로교·감리교·조합교회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온 교단이다.

이시바 총리의 외증조부 가나모리는 기독교 대학인 도시사대를 설립한 기독교 교육자 니지



마 조의 제자로, 스승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뒤 목사가 됐다. 이시바 총리는 교회 부속 유치원을 다녔고 18세 때 세례를 받았다. 학장 시절 교회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일본기독교단 연합회 주최 국가조찬기도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신교는 소수 종교에 속한다. 개신교 신자가 일본 인구의 0.5%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개신교인 총리가 배출된 것은 하토야마 이치로(1954~1956년) 이후 두 번째다. 2008~2009년 총리를 지낸 자민당 의원 아소 다로는 가톨릭 신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도계 거센 돌풍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게 된 비베크 라마스와미(39)와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된 케시 파텔(44)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시민권 담당 차관보로 발탁된 하미트 딜런(55)과 국립보건원(NIH) 원장으로 지명된 제이 바타차리야(56)도 인도계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부인 우샤 밴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남아시아계 세컨드 레이디가 된다.

NBC뉴스는 22일 “올해는 인도계 미국인 공화당 스타들이 새롭게 탄생한 한 해”라며 미국 내 인도계가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흐름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는 인도계는 전체 아시아계 중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계 미국인이 반 이민 정책 등을 내세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NBC는 아시아·태평양경제미국인(AAPI)의 설문 조사를 인용해 인도계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대선 때는 인도계 유권자의 77%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지만, 올해 9월 조사에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는 69%로 낮아졌다.

카틱 라마크리슈난 AAPI 설립자는 “트럼프는 18~34세의 인도계 미국인,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무능에 지친 인도계 미국인들이 역사적인 숫자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가격 40% 폭락 배경엔 ‘결혼 안하는 중국’

‘보석 중의 보석’으로 꼽히던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한 배경에는 중국의 결혼 감소와 경기 둔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다이아몬드 도매가격은 약 40% 하락했다. 미국 뉴욕의 다이아몬드 컨설턴트 폴 짐니스키는 “지난해 중국의 다이아몬드 수요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며 “업계에선 그 영향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메가트렌드’의 저자인 경제학자 라지브 비스와스는 “중국의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9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인데 결혼을 하라와 경기 둔화로 냉각됐다”면서 “가격이 수년간 하락하면서 다이아몬드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도 이를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결혼 건수는 올해 660만 건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3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에선 청년실업률 상승과 경기 부진, 결혼에 대한 가관 변화 등으로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다.

값싼 합성석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 기술 발달로 합성석의 품질은 천연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졌지만 가격은 최저 10% 수준에 불과하다. 상하이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비안 우는 “요즘 고객들은 더 작은 다이아몬드를 찾거나 가격이 훨씬 저렴한 합성석을 찾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계 합성석 시장 규모는 153억 달러였고, 중국은 그중 약 95%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비스와스는 “합성석이 다이아몬드 주얼리 수요의 15~20%를 차지한다”면서 “2015년 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합성석 귀걸이를 구매한 상하이의 한 여성 직장인은 “솔직히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가격은 300위안(5만9500원)에 불과했다”며 “가성비가 좋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줄어들까… 베트남 호찌민에 지하철 첫 개통

베트남 최대 도시인 남부 호찌민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됐다. 23일 블룸버그, CNN 등에 따르면 시중심부인 벤타역과 교외의 수오이띠엔역을 연결하는 약 20km 구간의 호찌민 ‘메트로 1호선’이 전날 공식 개통됐다. 호찌민의 첫 지하철인 메트로 1호선 노선은 총 14개 역으로 구성됐다. 3칸짜리 열차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200회 운행될 예정이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된 호찌민 지하철 건설은 비용 상승에 따른 계획 변경 등으로 수년 간 지연됐다.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예상 비용은 17조4000억동(약 9900억원)이었으나, 2009년 컨설팅업체를 통해 재산정한 비용은 43조7000억동(약 2조5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 착공 이후에도 자금 부족과 의회 승인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늦어졌다. 공사를 맡은 일본 업체 스미토모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경고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고, 결국 애초 완공 목표인 2018년을 훌쩍 넘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하철 개통을 맞은 시민들은 아침부터 지하철역으로 몰렸다. 각 역에는 무료 시승을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경찰이 투입돼 질서 유지에 나섰다.

약 840만대 오토바이가 좁은 차로를 달리는 호찌민은 교통 체증이 심각해 대중교통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베트남 정부는 지하철 시스템이 약 9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호찌민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찌민시는 추가로 지하철 6개 노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의 첫 지하철은 2021년 수도 하노이에서 개통됐다. 호찌민 지하철이 일본의 지원을 받은 것처럼 하노이 지하철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됐다. 하노이의 두 번째 지하철 노선은 2025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연결되는 두 개의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노이와 호찌민을 고속열차로 연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개혁신의 윤리학(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 신약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윤리적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부분은 Wayne Grudem의 Christian Ethics 제 8장을 참조했다)

구약의 법은 오직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은 정확 모오한 성경의 한 부분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여기에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은 신약과 동등하게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을 신약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A. 신약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약의 법

1.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히브리서 7-10장은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제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사로 드림), 그리고 새로운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르쳐준다. 구약의 육체적인 모형과 그림자들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실체들로 대체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그리고 로마서 12:1에서 크리스천들의 예배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칭한다 (빌 4:18)

그리고 신약의 성전의 의미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이며, “성도의 몸”이다(고전 3:16) 또한 벧전 2:5에서는,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없다.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



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9)

2.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구약의 할례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논쟁의 주제가 바로 할례의 문제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음을 가르쳤다. 바울은 갈 5:2-4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고 바울은 갈 5:11 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가르쳤다.

할례문제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행 15장)가 소집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행 15:1).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모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은 ‘이신 칭의’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을 역설했다. 비록 바리새파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15:5)고 주장하였지만,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받게 하시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행 15:8,9). 둘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율법적 제도를 지키도록 강

제수님께서 눅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르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나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선언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도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도들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할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침을 말한다. 고전 10: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식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음식의 문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갈 2:12).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갈 2:12).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 2:14).

바울은 골로새서 2:16-17에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

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3-5).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모세의 음식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다 (막 7:18-21).

4.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한다.

바울은 로마서 14:5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10-11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6-17).

바울은 “안식일”과 동일한 범위속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날과 절기”를 포함시켰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날과 절기들이다. 이것들은 앞으로 실체가 될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히브리서 4장은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안식 (spiritual rest)을 길게 설명했다. “그러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 4:9).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적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 4:10).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11).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안식을 바라보았다. 구약이 바라본 영적인 안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

KHL0206@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d>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gusa@yahoo.com / www.telgpc.com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d>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td></td>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gusa@yahoo.com / www.telgpc.com Tel.(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d>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td>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td>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d>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장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d>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jpc.org 170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영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l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td></td>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jpc.org 170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영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l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td>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영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l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td>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영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l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td>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d>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베델마리치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66 실비치 리저랜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수) <td>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213)737-3008, Cel.(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7:00, 9:00, 11:00 Tel.(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td></td>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213)737-3008, Cel.(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7:00, 9:00, 11:00 Tel.(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td>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7:00, 9:00, 11:00 Tel.(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td>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7:00, 9:00, 11:00 Tel.(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td>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d>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assembliesuniversity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d>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대 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유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F-용모로움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F-성경공부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td></td>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대 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유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F-용모로움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F-성경공부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td>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유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F-용모로움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F-성경공부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td>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F-용모로움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F-성경공부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Nativity of Jesus Christ)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Conception of the Virgin Mary)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성탄의 절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2:14)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해 이삭이(롬4:19) 엘가나(Elkanah)와 한나 부부를 통해 사무엘이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했습니다(삼상1:20). 신약에서 세례요한의 부모에게도 기적적인 출생으로 세례요한을 허락하셨습니다(눅1:18). 성경에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초 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사7:14).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데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했습니다(마1:18). 천사가 요셉과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내용은 마리아가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눅1:34).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남자에게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해당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1:16)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마1:20).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의 무죄설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

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초자연적 사역(Supernatural Ministry)

성경에서 최고의 이적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입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주저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목적을



"단 한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Emmanuel's Jesus Christ)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마1:23).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 내려오신 절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진면모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부흥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

나주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정을 달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 가까이 접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들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머리뿐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

는 은혜는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었습니다.(요1:29).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어린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 영광스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6)
'쉽고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치유'**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며 참석자들에게 힘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쉽고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치유'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수양회인 것 같습니다. 일 년에 많게는 4번, 작게는 2번 가졌던 수양회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2박 3일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양회는 '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명의 강사를 초대하여 다양한 주제강의를 듣게 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식사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과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쉬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무엇보다 잘드시게 하면서 교양강의는 1, 2회로 제한하고 네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준비한 상품을 나누는 게임이나 퀴즈를 통해 유쾌한 시간을 갖고, 숙소 주위로 산책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회는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며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배 후, 받은 은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 새롭게 깨닫게 된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속소가 바다 가까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바다로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옆방에 자는 사람까지 깨워서 함께 걷는 것에 비해, 남성들은 같은 방안, 바로 옆 침대에서 잔 사람일지라도 의사를 묻는 일이 없이 각자가 따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남성들의 이러한 성향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수명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5, 6년 짧은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째날 저녁 예배후, 느낀 바를 나누는 시간에 몇몇 분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말이 뭉치도 고팠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속풀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로움 속에 지내게 됩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교회모임, 혹은 가족모임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던 분들이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시편 133:1,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믿음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생명이 움틀 수 있을 것을 믿고, 한부모 인도자들에게서는 다소 부담이 될지라도 수양회 진행에 간과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성경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360)907-7271 blessing@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탄생예배: 오전 10: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전 1:45 탄생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지, 청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jorencp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찬양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437 706 Wilmer Rd, Hosiand,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 213 - 1200 (254) 668 - 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an, TX 756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백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p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서울 어느 고등학교에 영어 교사로 적을 두면서 신학교를 다니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신대원 졸업반인 어느 날 신앙적 소명과 안전한 직장인 교사로서의 갈릴길 선상에서 고민하던 중 근무하던 학교 벽에 붙여진 황진이의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다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나/ 인절도 물과 갈아서 가고 안 오노매라”(황진이) 그 선배님은 황진이의 시를 읽고 정신이 번쩍 들어 그 길로 곧장 교장실을 찾아가서 사표를 내고 어렵고 가난하고 기약이 불분명한 신학생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생이 쓴 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의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목은해의 시간은 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곧 새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각자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한동안 매일 새벽기도회를 열지 못했었습니다. 교회와 사택 거리가 멀고 한인 타운 치안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토요 새벽기도와 매월 첫 주 헌신 새벽기도회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고 40일 작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고 오는 이 시간의 타임에서는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그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거래처 사람에게 인심을 써서 주인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옳지 아니한 청지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8).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자기 처지를 깨닫고 자기 미래를 위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실행에 옮긴 그 불

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감각과 결단을 칭찬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고 오는 시간의 분기점에서 마음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시간의 정점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신앙적이며 소명적인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시내 도로변을 거닐다가 어느 포장마차 천막에 쓰여진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포장마차 가게로 손님을 부르기 위한 내용이었습니 다. 그 글은 젊은 제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의 배움의 자세와 인생의 자세를 단단히 다짐하는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광고 문구를 소개함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바로 “그냥 갈 순 없잖아!”

cyd777@hotmail.com



미/니/인/터/뷰

지명현 목사(Soriel For Church & Mission 대표)

“음악은 예배와 신앙생활,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 돼”

남가주주든교회(담임 김홍철 목사) 연말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김테일러 목사(군목 중령), 한현중 목사(크렌셔장로교회), 김태은 목사(히스패닉 사역), 지명현 목사(찬양사역자)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열렸다. 20일(금) 특새를 인도한 지명현牧사는 ‘요구 그리고 이유’(신명기 10:12-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자는 지명현 목사를 만나 그의 사역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990년 제1회 CBS 기독교 방송창작복음성가제에서 ‘주는 나의’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지명현 목사는 이후 수 천 여회 이상 라이브 집회 및 대규모 콘서트를 가져왔다. 지 목사는 이 시절을 ‘1기 사역’이라고 말했다. 이후 2007년에 미국 LA로 유학을 온 뒤, 갈보리채플(척스미스)에서 예배학과 목회학을 공부했으며 2013년 나성영락교회에 찬양사역자로 부임, 2022년 사임할 때까지를 자신의 ‘2기 사역’이라 설명했다. 지금은 제 3기 사역 중인데 바로 “Soriel for Church & Mission을 통한 사역이라고 소개하는 지 목사에게 요즘의 근황을 물었다.

△ 목사님의 근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3기 사역으로 글로벌 찬양 선교 문화 전도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미국과 한국을 거점으로 7개국을 다녔구요, 2년 동안 대략 160개 교회를 방문하며 콘서트및 찬양 간증집회 그리고 주일 찬양예배를 말씀과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 음악사역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신곡을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나 주를 찬양해(작사/작곡:지명현), 2.부흥케 하소서(작사:지명현,이천/작곡:이천), 3.시편 23편(작사/작곡:정현섭), 4.불같이 바람같이(작사/작곡:문영재), 5.하나님이 당신을(작사/작곡:한지현), 6.눈물꽃(작사/작곡:김인식), 7.Christmas Finale까지 총 7곡의 새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2-3곡 정도는 더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음악이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은 저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참 좋아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

에는 성가대와 교회 및 학교 중창단 활동을 열심히 하며 예배 또는 문학의 밤 등 많은 집회에서 종종 특송을 부르고 찬양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담기면서 놀라운 찬양이 됩니다. 그 어떤 찬양 한 곡은 초신자이건 교회를 오려 다닌 사람이건 간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크리스천 찬양 방송을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사역으로 간증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음악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사역을 하시기 된 어떤 동기나 영향받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중고등부 시절 당시에는 주 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많이 듣고 따라 부르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당시 김지현 김기석 남성듀엣이 등장했는데, 그 때 발표된 곡이 “불찌어다” 입니다. 그 곡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나도 저런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단 생각을 어렵듯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노래를 좋아했던 저는 대학 때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CBS 제1회 창작복음성가제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때 감사하게도 “주는 나의(하나님이시여)”란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

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달리다급”이란 곡을 작사/작곡하신 현윤식 목사님(당시 한국마라타 선교단 단장) 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성악을 하라고 권유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2022년 9월부터 다시 찬양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지를 다니며 찬양과 말씀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참으로 많은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청이 오고 기회가 된다면 땅 끝까지 힘을 내어 말씀과 찬양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Soriel For Church & Mission 단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기도해 주시며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미국 LA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길 기도합니다.

지명현 목사의 찬양 집회를 원 하는 단체 나 개인은 samueljee@gmail.com로 문의 하면 되고 홈페이지: www.sorieljee.com / 인스타: @sorieljee 유튜브: 소리엘 지명현 Soriel 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안애를 마감하며...

[기자수첩] 본분을 잊은 사람들

기자가 신학교 재학시절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우들과 답소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 어떤 수업시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설교학 수업 시간이었을 것이다. 학우들은 대부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었고 늘 하던 이야기는 교회사역에 대한 것이었다. 쉽지 않은 목회사역 속에 타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공유하여 자신들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모습이었다.

그 당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의 대화 중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성도들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해 효과적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또한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중매체를 적절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계셨던 교수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신 분이셨고 목회사역을 은퇴하시고 후학들을 위해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였다. 그 교수님은 “그런 거 할 시간에 말씀공부에 좀 더 매진하라”는 권고였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였는데 당시 우리들의 반응은 “목사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교인들과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라고 했었다. 그때 교수님의 반응은 “쓸데없는 소리”라며 야단을 치셨다.

시간이 흘러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 정황상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하지만

눈살이 찌푸러지고 한숨이 나오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목격할 하게 된다.

연말이 되면서 수많은 행사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미처 취재를 하지 못한 것은 참석한 분들의 입을 통해 소식을 접하곤 한다. 많은 교회 단체들 중에는 거의 처음 접하게 되는 단체들도 있음을 알게 되는데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놀랐고, 이사장이 목회자여서 놀라는 일이 있다. 그 놀라움은 안타까움이 담긴 놀라움이었다. 기자가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것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서였다.

기자가 신학생 시절 수업시간에 야단을 치셨던 노 교수님의 말씀이 “그 단체의 이사장 혹은 대표를 할 시간 말씀공부에 좀 더 매진하라”로 오버랩이 되서 들리는 것 같다. 그 당시 노 교수님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기쁘게 충실하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교계기자가 된지 20년을 향해 가면서 교회와 목회자의 소식을 수없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사이즈와 교인의 숫자가 크고 적고를 떠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났던 목자의 이야기 등을 생각해보면 본질에 충실하기 보다는 ‘마음이 풍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씩씩해진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다 시절에도 예수님의 오른 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자신

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부탁했었는데 오늘날은 셀프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 중심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짐을 요구하셨는데(마 20:26, 27; 막 20:43, 44)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말씀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단체를 이끄는 것은 귀한 일일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과연 그들이 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동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본분인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잡음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물일 것이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과 사역들이 가득하게 되었으면 한다. 목회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리고 그 바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마스를 가능케...

《2면에서 계속》

시몬은 그 작은 씨앗을 부드럽게 안았고, 그가 요아스의 직계 후손이자 주님의 구원을 품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다(눅 2:30). 그가 성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더 이상 요아스처럼 배우는 존재가 아니었다. 여호야다처럼 가르쳤다(47절).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은 금고가 되었다.

목숨을 건 제사장의 아내 덕분에 그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썼다. “누가복음 2장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라. 아달라가 그녀의 뜻대로 했다면 천사도 없고 목자도 없고 포대기도 없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한 여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유명인이라는 지위도 없었고, 매혹적인 수사법도 없었고

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적도 없었다. 뒤에서 합창하는 천사들도 없었지만, 여호세바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악한 통치자에게 조용히 저항했다. 천국에 있는 여호세바가 지금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히 알 것이다. 하지만 오래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구주의 혈통을 구해냈다. 그녀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자신의 혈통을 구하셨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존하셨다. 할렐루야!

by Steve Bateman, TGC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오전 6시 분당에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 문의: 718-886-4040

프라미스교회, 히년맞이 신년특새

프라미스교회(담임 하연행 목사)는 히년맞이 신년특별새벽예배를 '아침에는 기쁨이 오로다(시 30:5)' 주제로 1월 1일(수)부터 4일(토)까지 오전 5시25분에 신년특별새벽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321-7800

뉴욕지역 미자립 이민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아름다운교회(담임 제재광 목사)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 미자립 이민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각 \$2,000씩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2023년 세금보고 △학교성적표 △주보(사진 또는 스캔) △에세이(제목: "목회자 자녀로 살아온 나의 삶") △신청양식(다운로드: www.arumdaun-church.org/events/). 마감일은 2025년 1월 15일(수) 11:59pm (EST)까지이며, 신청은 info@arumdaunchurch.org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제목에 "장학금" 과 본인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 문의: 윤도현 전도사 (아름다운교회 행정실) 516-349-5559 ext.107

안나산기도회, 신년 성경통독 금맥세미나

안나산기도회(원장 김영창 목사)는 권기창 목사(성경금맥저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1월 6일(월)부터 9일(목) 3박4일동안 안나산 기도원(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에서 신년 성경통독 금맥세미나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150불(부부합인 120불)이다. ▲ 문의: 301-874-2984, annaprayer@gmail.com

뉴저지실버선교회, 2025년 정기총회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는 1월 16일(목) 오후 6시 새언약교회(김종국 목사 시무)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실버선교회의 선교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회원이다. (641 Church St. Oradell, NJ 07649)

▲ 문의: 정동화 사무총장(201-960-5539), 전경엽 총동창회장(201-294-4758)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위원장 장재웅 목사)는 1월 14일(화) 오후 6시에는 펜실바니아 랭카스터 제일연합감리교회(아펜젤러 첫파송교회), 15일(수) 오후 7시30분 뉴저지 더바인교회, 16일(목) 오후 7시30분 뉴욕그레익넛교회(양민석 목사 시무)에서 140주년 기념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 문의: 717-394-7231, 201-509-0685, 917-326-1723

뉴저지베데스기도원, 신년영성회복성회

뉴저지베데스기도원(원장 최현숙 목사)은 1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8:00pm(금,토), 6:00am(토), 11:30am(주) 베데스다기도원에서 이상목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신년영성회복성회를 개최한다.

▲ 문의: 201-747-089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건강세미나

시애틀평강장로교회(담임 김흥연 목사)는 1월12, 19일(주일) 천교실에서 김정은 전도사(Ph.D in Nursing Science, 현 FIU 겸임교수, 전 수원대학교 간호학 교수, 전 서울아산병원 간호진단팀장, 전 삼성의료원 간호 전체 교육팀장)를 초청하여 2025년 새해 '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206-527-0981

퀸즈장로교회, 24년째 사랑의 바구니 전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사랑의 바구니 제작 후 담임 김성국 목사와 성도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4년째 연말마다 과일과 캔디뿐만 아니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911 사태가 일어났던 2001년, 퀸즈장로교회는 고통을 당한 뉴욕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바구니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도 전체 130 개중 30 개를 소방서에, 40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1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지하 천교실에 모인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사역인 한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교직원들과 선교회 회원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었다. 올해에는 사랑의 바구니 작업 중 다함께 "내게 강같은 평화"를 함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바구니를 만들어 갔다. 점심 식사 전교 후 오후에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흠어져 바구니 전달에 나섰다. 어려운 불우이웃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과 병원, 이웃 주민 등 감사와 사랑이 필요한 기관에 사랑의 바구니를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바구니에는 각종 계절 과일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과 연주로 선교지에 작은 씨앗을”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은 12월 22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선교를 위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인도-탄자니아(이태진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광우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김중오 선교사), 러시아(이승률 선교사) 등지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연주회는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 돼 대표기도 이규형 목사(뉴욕교역자연합회 회장), 선교헌금기도 이준성 목사(교협 증경회장)로 진행됐다.

이날 연주회는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의 연주와 찬양으로 찬송가, 복음성가, 동요, 명곡, 크리스마스 송 등 다양한 곡들로 가득 찼다. 특히, 유일한 청일점 김희동 장로가 눈길을 끌었으며,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준 크로마하프중주와 독주, 율동 공연은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광선 찬양사역자의 독창과 신광교회 아가파오중창단(지휘 신재훈 집사)의 중창이 특별 순서로 진행돼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단장 이만호 목사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찬양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조국과 교민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회장 이진아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크로마하프와 찬양으로 선교를 돕고, 수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단장 박영희 권사는 “연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모든 순서는 김희복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감사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차세대 워십댄스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로 쓰여 있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세상이나 교회나 무척 어두운 현실에도 성탄을 맞는다”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두움을 빛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것이기에 이 땅과 교회들 역시 밝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지회 설립 20주년 기념예식 및 제1회 우남 장학금 시상식 후 사진 촬영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제1회 우남 장학금 시상식

“지금 당장, 다음세대가 아닌 지금세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12월 21일(토)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하연행 목사 시무)에서 뉴욕지회 설립 20주년 기념예식 및 제1회 우남 장학금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회장 노기송 목사 개회사로 시작 된 설립 20주년 기념 예식은 기도 김영환 목사(부회장),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 하연행 목사(뉴욕교협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노기송 목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매일 정오 12시에 1분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우남장학금 수여자들에게도 조국을 위한 기도 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하연행 목사는 '크리스천의 3대 의식 (롬 14:8-13)'을 주제로 설교하며 “크리스천의 3대 의식은 역사이식, 신전이식, 공동체의식이다. 기억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계승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 다음 세대, 아니 지금 세대에 관심과 투자를 시작하며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 크리스천은 진리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지회 20년 발자취 사진 영상을 상영한 후 윤세웅 목사(초대회장) 기념사, 김명옥 목사(미주총회장)의 축사가 있

었으며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의 축사를 이은수(한인수석)부회장이 대독했다. 이후 증경회장단의 기념품 전달과 주효식 목사(뉴욕교협부회장)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사무총장 이종명 목사 사회로 시작한 제1회 우남 장학금 시상식은 성음크로마하프단의 연주, 권케더린 목사(심사위원) 심사평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공모하여 11명의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권케더린 목사(심사위원)는 “학생들이 독후감을 통해 한국의 뿌리와 자유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도전과 지표로 삼은 것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의 방향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여자는 이기쁨, 정은지, 정종은, 이수경, 유한영, 이은호, 박태민, 정윤서, 박상미, 이은혜, 김주호이며 박태민, 정은지, 이수경, 김주호 학생이 독후감을 발표했다.

조동현 장로(이사장)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말씀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 이종명 목사의 인도로 대한민국을 위한 합심기도가 있은 후 손순대 장로(뉴욕국가조찬기도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차세대 워십댄스 팀 Ao1, 교계에서 뜨거운 반응

겨울 수련회 카운트다운 시작

한 분의 관객, 최고의 관객인 하나님을 모시고 온몸으로 춤추는 차세대 워십댄스 팀, Ao1(Audience of One)이 활동하는 뉴욕과 뉴저지 교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뉴저지에서 진행하는 겨울수련회는 예상인원을 훌쩍 넘어서 더이상 등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모이고 있다.

그동안 Ao1(디렉터 루비킴)는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차세대 사역기관으로 선정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았으며,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36주년 음악회와 뉴욕 한인청소년센터 바다워십 페스티벌에도 게스트로 섰다.

Ao1은 2020년에 워십댄스 여름캠프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여름 캠프후에는 워십댄스의 밤 행사를 통해 성장한 신앙

과 댄스실력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겨울수련회까지 사역이 발전했다. 홈페이지(ao1dance.com)에서 Ao1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제3회 Ao1 청소년과 청년부 겨울수련회는 “먼저 그분을 찾아라(마태복음 6:33)”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겨울 수양회를 개최한다. 차세대와 도시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존 김 목사가 주 강사로 교회연합으로 구성된 특별 찬양팀과 댄스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또한, 소그룹 모임, 다양한 주제의 특별강연, 간증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42차 해외성회(242nd Overseas Assembly)
미국(U.S.A) 뉴욕서광교회 주일부흥성회(최고선 목사)
미국(U.S.A) 사단법인 7천기도클럽 (이사장 권태일 목사, 1대 대표총재 김중오 목사, 2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뉴욕 기도회, 동역 뉴욕 기독교방송
미국(U.S.A) 뉴저지 지역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선 목사)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선 목사) 부흥성회 및 Pastor's Seminar
미국(U.S.A)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선 목사) 부흥성회 및 사단법인 7천 기도클럽 뉴저지 기도회

7(토) 오전 Special Blessing Event Class
9(토) 오전 텐트메이커선교회(주)하나님 6층 (대표 남보석 목사)
9(토)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남보석 목사) (이재선 목사)
주최 : With부흥사회의(대표총재 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10(토) 오전 서울 새생명교회(변용성 목사) 010-2074-5398
10(토) 오후 인천 주사랑 열방교회(백사명 목사) 010-2272-9119
10(토) 오후 서울대학교 동문 송년 MT 장소 : 서울 동대문 메리터 그린핀
12(토)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3층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박경근 목사) 010-2202-0691
13(토) 오전 서울 영동 밀레오호텔 3층 주최 : (사)세도총회 (이사장 김영준 목사) 010-9260-1091
13(토) 저녁 서울 동성안 교회(양인호 목사) 010-3289-3991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제243차 해외성회 (243rd Overseas Assembly)
16(토)~17(토)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스데반, 대회장장 피종진 목사) 日本政有認可
18(토) 저녁 일본(JAPAN) 東京(日韓文化交流協會 東京大會 Japan, Korea, China Exchange Association Conference in Tokyo
19(토) 낮, 저녁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대종전도전회 (동경 우에노 사랑교회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 자원봉사단)
20(토) 저녁 일본(JAPAN) 日本 韓國 中國 문화교류협회 Naria 大會 및 특별성회

21(토) 오전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수 목사) 010-3065-7825
주최 : 작은자심감선교회(대표회장 양유석 목사)
23(토) 오전 한국기독교여전도회회관 주최 : (사)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23(토) 오후 기독교여성선교 창간22주년기념예배 Blessing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20층
25(토) 오후 김포 김일교회(조경숙 목사) 성탄절 연합예배 010-8222-1992
26(토)~27(토) 천안 위대함안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31(토) 자정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현근 목사) 02-3411-9191 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www.nscs.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말씀위의교회 이전감사예배에서 김명구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씀위의교회 이전감사예배

말씀위의교회(담임 김명구 목사) 이전감사예배가 22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예배는 성탄예배를 겸해서 열렸다. 김명구 목사는 “리버사이드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며 “한 달 전에 새 예배처소로 오게 되었다. 교회이전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명구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이은철 형제와 권혁범 형제가 특송을 불렀으며 김명구 목사가 ‘성탄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눅 2:25-3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명구 목사는 “성탄절과 교회이전의 공통점은 기쁨,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대라고 말하고자 한다”며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정작 기대해야 하는 대상은 예수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문

에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하셨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위의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기 바란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명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말씀위의교회는 2017년 10월8일 리버사이드에 개척이 되었다. 김명구 담임목사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부(B.A.)와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했으며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교회인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사역했다. 말씀위의교회 장소는 9295 Magnolia Ave Ste 201., Riverside, CA 92503이다. 자세한 것은 (909)247-735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OC목사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목사회 총회 개최, 신임회장 강문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 이하 목사회)는 지난 9일(월) 오전 11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에서 총회를 열고 47대 회장으로 46대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문수 목사(효사랑선교회)를 선출했다. 목사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회기 동안 이원석 목사가 회장으로 헌신했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 총무 김영일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수석부회장 강문수 목사의 기도 후 증경회장 박대근 목사가 ‘복있는 하나님의 종’(시편 84: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증경회장 손대정 목사가 축도했다.

〈기사제공: OC목사회〉

CBMC 북가주연합회, 은혜와 화합 속에 송년의 밤 개최

CBMC 북가주연합회는 지난 12월 5일 산장 식당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라는 기치아래 미주 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CBMC 북가주 연합회의 이번 송년의 밤은 데이빗 양 연합회장을 비롯, 약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버클리지회의 류호석 지회장이 찬양을 인도하며 막을 연 가운데, 데이빗 양 CBMC 북가주 연합회장의 기도와 소프라노 권윤희 씨의 찬양에 이어 Joshua Kim 목사의 말씀을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골든게이트 엄영미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실리콘밸리지회의 한계선 회원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버클리 지회의 새 회원들이 소개되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참여해 CBMC 활동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2024년 동안 각 지회가 이루어낸 업적들을 활동사진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므로 그 의미를 더했다. 마지막 순서로 골든게이트지회의 서인숙 지회원이 ‘다니엘 한글학교’(산마테오소제)를 소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나눴다. 이번 송년의 밤은 각 지회의 참여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CBMC 북가주연합회 송년의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전도회연합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전도회연합회 총회, 신임회장 한성준 집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협회로 운영할 것”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는 제45차 총회를 21일(토) 오전 10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재부부장 한성준 집사를 추대선했다.

한성준 회장은 “3년전 전도회연합회 활동을 시작했고 회계업무를 봐왔다. 회장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수락하게 되었다”며 “전도회연합회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회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용 회장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성준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감사에는 이소연 이사, 엄제선 장로로 결정했다. 그리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025년 1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에 이사장에 인준을 하기로 했고 이사장 김도영 장로를 인준했다. 양문국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 전 신용 회장 사회로 열린 1부 감사예배는 부이사장 신영세 장로가 대표기도했으며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 담임/OC목사회 직전회장)가 ‘교회의 주인공(창 45: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원석 목사는 “본문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온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생명이 회복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며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내고 연결하여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이다. 주어진 한 주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돌리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주도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개최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12월 10일(화) 소망홀에서 ‘자원 봉사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85명 중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 17년 동안 소망소사이어티가 죽음준비, 치매와 가족간병 교육 및 소망케어교실, 치매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 소망 메모리케어 프로그램 등 한인시니어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원 봉사자들이 소망소사이어티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사장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함께 견디고 수고해 온 봉사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오랜 기간 봉사한 봉사

자 강혜옥, 박애랑, 이남주, 차제임스, 최영희 5분이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 상장과 메달을 받았고, LA지부 6명(강철스, 엄영숙, 이예스더, 정경자, 천희정, 감운), 오렌지카운티케어교실 1명(송혜진), 소망중앙단 4명(강혜성, 김명희, 나미애, 유해나), 소망 소사이어티봉사 4명(이흥구, 이문자, 변영자, 변종원), 샌디에고지부 2명(강순희, 김영옥)이 소망봉사를 받았다.

샌디에고의 박순빈 지부장은 “샌디에고에서 소망소사이어티가 많이 알려지는 것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의 결과”라고 말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치매 케어교실을 맡아 봉사하는 차귀옥 봉사자는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을 섬길 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모습이 늘 감동적”이라고 말하며, “봉사자들의 진심어린 섬김이 그런 열매를 안겨준 것”이라고 전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봉사자의 날은 지역 사회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섬기고 애쓰는 봉사자들에게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행사였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KAPC 개혁장로회대학 2025학년도 겨울특강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은 2025학년도 겨울특강을 1월6-8일, 13-15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미서부시간)에 줌으로 갖는다. 과목명은 예수님의 비유이며 강사는 최갑중 박사(전 백석대학교 총장)이다.
▲문의: (626)675-8010

제3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
제34대 OC교협 회장단 이 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가 29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문의: (714)686-1441

사랑의빛선교교회 특별새벽부흥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새벽부흥회를 12월 30일-31일(월-화) 5:20AM, 1월 2-3일(목-금) 5:20AM, 4일(토) 6:00AM에 갖는다. 강사 윤대혁 목사, 김기섭 목사(화, LA사랑의교회).
▲문의: (626)744-9191

생수의강선교교회 신년감사예배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구 목사)는 신년감사예배를 1월5일 주일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562)653-0168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1월2일(목)부터 4일(토)까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2)’라는 주제로 갖는다. 시간은 목-금 새벽 5시20분, 토 새벽 6시
▲문의: (562)677-7777, 860-5451

세미한교회 2025년 신년 비전 집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2025년 신년 비전 집회를 ‘기도로 하나되는 목장’이란 주제로 12월 30(월)부터 1월 3일(금)까지 오후 7시에 갖는다. 집회강사는 이은상 담임목사이며 12월31일에는 송구영신예배(오후 11시)로 대체된다.
▲문의: (972)446-0178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임직 및 은퇴식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는 임직 및 은퇴식을 1월5일(주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문의: (512)454-1727

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장로 추대식 및 시무장으로 은퇴식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원로장로 추대식 및 시무장으로 은퇴식을 29일(주일) 2부예배 시간(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818)884-2391



살롬장애인선교회 성탄축하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홍철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 성탄축하예배

“복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성탄축하예배가 20일 오후 5시 김홍철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를 초청한 가운데 드러졌다. 이날 예배는 박모세 목사 인도로 권미선 목사의 찬양인도와 손덕수장로 기도, 남가주든든한교회 학생들의 찬양과 김홍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홍철 목사는 ‘복 주시는 이유’(시 67:1-7)라는 제목으로 “성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질문하며 말씀을 이었다. 그는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심이다. 복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널리 전하자”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찬양인도로 수고한 김미선 목사와 찬양팀에게 선물증정과 장애우 폴신 형제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김홍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본 선교회는 제 49차로 에스와니티로 보내는 선적을 위해 로딩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에 관한 문의는 (323)731-772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엄마와 아기, 두 개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

크리스마스 베이비 캠페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임신을 원하나요?’ ‘임신했다고 하니 남자친구가 잠수했어(잠적하다)’ ‘엄마와 아기, 두 개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인 ‘홍대 레드로드’. 두꺼운 점퍼를 입으며 중무장한 12명의 봉사자는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에서 팻말을 높이 들며 ‘사일런스 피케팅(silence picketing·침묵시위)’을 펼쳤다. 팻말들은 태아 생명, 소중함을 알리는 목격한 메시지부터 익살스러운 문구까지 다양했다. 봉사자들은 프로라이프 비영리단체 아름다

운피켓(대표 서유희 목사)이 펼치는 태아생명 존중 캠페인 ‘크리스마스 베이비 구하기’에 참여하기 한자리에 모였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도 13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아름다운피켓은 2011년부터 성탄절 시즌에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성탄절 전후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켓 캠페인을 연다. 캠페인은 낙태한 이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닌 낙태를 예방하는 것에 방점을 둔

다. 그래서 성탄 트리 꾸미기와 추억의 뽑기, 퀴즈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집목했다. 이날 기자는 봉사자들과 간단한 네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Q&A’ 설문조사와 피켓 행진 등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참석자들에게 ‘추억의 뽑기’ 게임을 진행하며 비타민, 태아 발뻗지, 핫팩,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던 이들은 마지막으로 10여분간 레드로드에서 ‘피켓 행진’을 벌였다. 한 줄로 길게 줄지어 피켓을 들고 지나가자 거리공연을 들던 행인들은 행진 모습을 촬영하면서도 팻말 문구를 꼼꼼히 응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캠페인에 참여한 최이든(40)씨는 “제 생일이 12월 24일이다.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셨기에 이 캠페인을 통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라며 “평소 프로라이프에 관심이 많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데니 라이프’에도 관련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페인을 기획한 서유희 대표는 “캠페인 초반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매번 캠페인 봉사자 모집이 숙제인 것 같다”며 생명 캠페인 확산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퀴어행사 목적은 동성혼 합법화” 부산서 반대 집회

강연·문화공연 통해 메시지 전해

22일 오후 부산 서면에 약 800명의 사람이 모였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인 이들은 피켓을 들고 건강한 가정을 외쳤다. 이날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5년 만에 열린 부산 퀴어행사 ‘메리 퀴어 스마스’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부산시민만들기시민연대가 주최한 ‘레알러브 시민축제’ 현장이었다.

행사는 주요 연사들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반(反)성혁명 운동에 전념해 온 김원평 한동대 석좌교수가 퀴어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퀴어행사가 일종의 문화행사처럼 열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동성애의 일반화, 나아가 동성

혼의 합법화 의도가 있다”면서 “부산의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갖는 피해를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누비며 성혁명의 문제점을 알렸던 홍호수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국으로 국토순례를 다닌 이유는 오늘과 같은 반(反)성경적 행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아직도 거룩한방파제가 세워져야 할 곳이 너무 많다. 부산에도 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교회 합창단이 나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을 잔잔하게 불렀다. 참가자들이 따라

부르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어서 ‘빛 되신 주’ 찬양에 맞춰 경쾌하게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청소년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부산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경수(18)씨는 “이런 행사가 자칫 교인들과 나이 드신 분들만의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저와 같은 젊은이들도 거리낌 없이 참가할 수 있게끔 문화공연과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자녀 사랑학부모전국연합이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 75.5%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17.1%에 불과했다. 성별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1%가 반대, 29.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성탄에도 외로운 동생들 돕기 위해 집 나설 용기냈어요”

고립은둔청년들이 준비한 성탄

예닐곱명의 청년들이 용기종기 둘러앉아 선물 포장에 여념이 없다. 다소 서툰 포장지 접는 손길에 정성이 보였다. 이들이 포장하는 물품은 오는 성탄절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될 장갑이다. 한 청년에게 봉사에 참여한 기분이 어떻냐고 묻자 뜬금없이 “잘 모르겠어요.” 이날 모인 이들은 집 문을 열고 나서기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고립은둔청년들이다.

경기도 군포 한무리교회(백광홍 목사)가 섬기는 고립은둔청년들이 22일 자원봉사를 위해 교회에 모였다. 온다고 약속했던 청년 중 3명은 당일 연락이 두절됐다. 백광홍 목사는 “우리엔겐 익숙한 일”이라며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웃었다. 백 목사는 “선물과 포장 용

품을 구매하러 가게에 가고 여럿이 모여 포장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사역이다. 백 목사는 “고립은둔청년 사역은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라며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야말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무리교회와 함께하는교회의 목표는 이 청년들에게 친절한 이웃이 돼주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혼자 있고 싶고 ‘잠수’를 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청년들도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반드시 이들은 변화됩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항상 그들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윤성(가명) 청년은 “연말이라 동생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

서 참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백 목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로 6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다고 한다. 인근 지샘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부축해 이동을 돕는 일이다. 한무리교회는 5년 전부터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하는교회(유병욱 목사)와도 협력을 시작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안부 레터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전화 소통과 식사 등 조금씩 만남의 폭을 넓히다가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까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다. 백 목사는 “고립은둔청년 사역은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라며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야말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무리교회와 함께하는교회의 목표는 이 청년들에게 친절한 이웃이 돼주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혼자 있고 싶고 ‘잠수’를 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청년들도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반드시 이들은 변화됩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항상 그들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수용자 26명 세례식... “행복이란 출발선에 선 느낌”

소망교도소 ‘하반기 소망세례식’

성탄절을 앞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 대강당에선 세례를 베푸는 기도가 잇따라 들려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에게 세례를 주노라.” 목회자의 세례를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수용자들이었다. 기도가 끝나자 이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 수용자 26명은 가족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며 새 사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가족들은 꽃을 전하며 세례를 축하했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에 왜 울어.” 몇몇 수형자와 가족들은 부둥켜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보였다.

수용자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송을 찬양했다. 홀로 일어서기 힘든 현실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듯했다. 2010년 한국교회가 함께 설립한 아시아 최초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마련한 ‘2024년 하반기 소망세례식’에서다. 세례식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부흥회

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였다. 특별한 간증의 순서도 마련됐다. 소망교도소 재소자 출신인 허준서 생명의교회 전도사가 강단에 올랐다. 그는 2020년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육기관 종신대(총장 박성규) 신학과에 재학 중이다. 허 전

도사는 과거 기독교를 부정하고 봉사자들과 싸웠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허 전도사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자신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여겼다”면서도 “하지만 독방에 있던 시절, 우연히 성경에 담긴 십계명을 읽었는데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가”라고 청중에게 반문하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말라. 부끄러운 제 삶을 하나님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이끄셨다”고 말했다. 허 전도사는 자신과 함께 자리에 참석한 아내를 소개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10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이날 세례를 받은 재소자 A씨는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소망교도소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니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선 느낌”이라며 “출소해서도 아내와 함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의 빈민가 지키는 선교사에게 찾아온 성탄절 ‘선물’

CGN의 크리스마스 특집 ‘오! 마이 박스’ 인도 편

CGN의 크리스마스 특집 ‘오! 마이 박스’ 인도 편이 성탄절인 25일 공개된다. 이번 특집의 주인공은 인도 나비 몸바이 빈민가에서 ‘엄마’로 불리는 공숙자 선교사다.

성탄절을 맞아 개그맨 김기리가 세 가지 특별 선물을 준비해 공 선교사를 찾아가다. 내년엔 은퇴를 앞둔 공 선교사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30여 년간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

1994년 처음 인도 땅을 밟은 후 빈민가 구제와 교육 사역에 헌신하며 마하마 교회와 국제기독교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교

육 환경이 열악한 빈민가의 여성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마하마 학교의 교사로 세우는 등 선한 열매를 맺어왔다. 공숙자 선교사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했다.

‘오! 마이 박스’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인들의 응원을 전하는 힐링 다큐멘터리다. 지난 5일 제16회 한국기독교연론대상 해외 선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캠퍼스=선교지” ...올해 2000명 ↑

백석대, 2024년 결신자 통계 밝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표방하는 백석대(총장 장종현)의 학원 선교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에 따르면 올해 캠퍼스 전도를 통해 2298명의 학

생이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신앙적 결단을 내렸다. 캠퍼스 선교 폭발의 진원지는 장종현 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화목우주선’이다.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는 없다’

는 장 총장의 구호에 따라 대학 교육본부는 전도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화목우주선은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을 의미한다.

1학기 동안 교육본부는 충남 천안시 백석대 캠퍼스에서 가장 붐비는 길목에 화목우주선 캠퍼스를 설치해 학생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822명이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2학기에는 이 활동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스도 캠퍼스 전역으로 넓혔다. 백석대는 이를 통해 1학기보다 더 많은 1476명과도 신앙적 접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인한 교육부총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학기 성과를 바탕으로 전도 활동을 확대했으며 백석정신 아카데미와 학부 교수님들의 동참으로 캠퍼스 복음화가 대학 구성원 모두의 과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도 활동에는 교내외 교회들의 협력도 큰 역할을 했다. 천안백석대학교교회(공규석 목사)와 청수백석대학교교회(강인한 목사)는 전도팀과 학생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복음 전파를 도왔다. 엄정화 천안백석대학교교회 집사는 “백석대학교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해 캠퍼스 전도에 동참했다”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도 부스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경상학부 황서희(20)씨는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지만, 캠퍼스 전도 활동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며 “전도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mission

선교의 창 (25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나라 사랑, 민족 사랑

2024 갑진년(甲辰年)의 해가 지고 있다. 허나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익히 아는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밤 10:27에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12/4 일 4:30am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

님의 대사로써 본분에 충실하되 조국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예레미야 적 탄원을 해야 한다.

선교사와 조국

조국(祖國)이란 무엇인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과 고국(故國)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모국(Motherland)이라는 말을 쓴다. 인간에게서 조국은

조국이란 인간의 마음이 묶여 있는 곳이다. 이에 조국을 품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마음을 바치고, 결코 조국을 잊지 말라.”

비상계엄의 후유증

비상계엄! 21세기 백주대낮에 이 무슨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인가?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 국가도 아니고 세계 10위 권의 국력을 자랑

력손실이 터진 수도관의 붓물처럼 흠뻑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로 민심이 가을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다. 앞으로 탄핵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이후 차기 최고 정치리더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위인들의 동족 사랑.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선교사의 모델적인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 그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동족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당했다. 그에게서 유대 동족은 원수 같은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3). 모세는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간구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 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세계 4대 열강에 포위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큰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큰 중국,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이 있다. 인구로 치면 20억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셈이다. 이 열강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더구나 우리 머리 위에는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있다. 북한은 우리 동족이지만 주최사상으로 세뇌된 예측불허의 집단이다. 우리 한국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바 내년 1/20일에는 트럼프(Trump)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다시금 미국을 통치할 예정이다. 그는 America First을 외친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스트롱맨들과 소통하는 사이이다. 세계의 정치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그가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정책을 펼까? 매우 신경 쓰이는 이때이다. 한시가 급한 지금 국내 정치판이 말이 아니다. 경제도 어렵다. 민심은 흉흉하고, 갈갈이 찢겨 있다. 도대체 낙마처럼 엷힌 국정을 누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부관들이 웬일이냐고 하니가 “독립 등 모든 행사가 군사력이 나 어떤 힘 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국에 빛인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엷힌 실타래처럼 꼬인 정치 질서가 순리적으로 풀어지도록! 혼란스런 이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가라 앉은 경제가 회복되도록! 분노와 대결적 민심이 냉정해지도록! 이 땅의 교회가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맺음 말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들은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다. 선교사의 주된 임무는 이방인 구령사역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선교사는 항상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국의 터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부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선교사들 중 어떤 이는 현지 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있다. 허나 이는 거주지 나라 국민이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다. 표본이 엉뚱이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조국이 없으면 선교사도 기댈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정치적 혼돈 가운데 있다.
환난 시 선교사는 부화뇌동하기보다 주님의 간섭을 의뢰해야 한다.

은 12/14일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일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8년 전인 2016년 겨울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다. 위기는 기회이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다. 이번 일을 통해 국운이 융성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조국이 흔들릴 때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절대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파당논리에 휩쓸리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

태어나 자라온 삶의 터전이다. 자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다. 기댈 언덕이다. 돌아갈 고향이다.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는 안식처이다. 따라서 조국은 어머니처럼 신비스런 힘을 지닌다. 만일 조국이 없었다면 나의 가정이 있을 수 없다. 교회도 물론이다. 조국이 없는 인간은 불행하다. 집 없는 고아와 무엇이 다르랴! 그는 마치 길가의 조약돌처럼 빛을 잃고 나뭇굴 게 된다. 지금 지중해를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을 보라. 이런 점에서 선교사에게 조국은 너무나 중요하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 (Voltaire)는 말했다. “

하는 대한민국이지 않는가? 다행히 이 계엄령이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6시간 만에 끝났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불려온 파장은 커져만 가고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준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은 상상이상이다. 오죽하면 농민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나올까? 국가의 대외 신인도는 어떠한가? 금융지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야간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46원을 기록했다. 미국 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

총32:32). 참 신앙은 이처럼 자기가 속한 민족공동체나 국가에 대해 애정을 수반한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안창호, 이상재, 이승훈, 조만식 선생 등 신앙적인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민족애를 가진 분들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교사는 섬기는 현지인 못지않게 조국을 사랑하는 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국가적 위기 때 기독교인의 자세

태풍이 불어올 때 현자(賢者)는 고개를 숙인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때 너도 나도 시류에 편승해 돌을 던지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절제해야 한다. 두말하고 싶으면 한 말만 하라. 한말하고 싶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 힘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이 치열했을 때 보좌관들이 조지 워싱턴을 찾았다. 그는 역수같이 내리는 비

태생적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없다. 문제는 정체성이다. 아무리 한국 여권을 지녔다 할지라도 소 닭 보듯 희로애락의 동질성을 못 느낀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문제가 있다. 지금 조국의 아픔이 가슴으로 와 닿는가? 포로 신세인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기도했다. 우리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36강 사울 (사무엘상 8-15장) 4

내 백성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며(삼상 14:47,48) 왕으로 사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출 17:16)고 말씀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십니다(삼상 15:3).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립니다(삼상 15:7-9).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삼상 15:11)고 하십니다. 사울이 그럴 줄 몰라

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과 그 결과를 아시기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승리로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도 세웁니다(삼상 15:12).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사울을 책망하지만(삼상 15:18,19)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합니다(삼상 15:20,21). 이어 다시 사무엘의 책망이 이어지고(삼상 15:22,23)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데 그 원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삼상 15:24)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아직 사울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민병대 수준이었습니

다. 기드온 전쟁 때와 같이 전쟁의 상황이 생기면 전쟁에 나갈 자들을 모아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삿 7:1/ 삼상 11:7). 이때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의 '전리품'을 챙길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 왕이 모든 좋은 양과 소를 죽여버리면 전쟁에 참가한 자들에게 줄 전리품이 없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사울 왕에게 불만을 품을 것이고 그러면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마침내는 사울 아닌 다른 왕을 찾을 것인데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백성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해서였기에 하나님을 볼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 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

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30)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울은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여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불들린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삼상 15:23). 당장 왕으로 더 이상 통치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를 불들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하지 않음에도 직분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불행입니다. 결국 사단의 상징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람의 왕'인 사울에 의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삼상 15:32,33).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울은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려모였습니다(삼상 14:52).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사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삼상 15:26)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불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삼상 14:37)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삼상 28:6).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됩니다(삼상 31:1-6/ 대상 10:1-6).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대상 10:13,14)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백성

을 더 두려워하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살피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산 삶'이었습니

다.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한 관계로 묻지 못하고 항상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께'라며 간청하였고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였으며(삼상 14:37, 28:6)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삼상 28:3-25). 그래서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 살다 죄인으로 죽게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에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한 왕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을 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에배

월 아버가일의 신앙 (삼상 25:1-44) 찬340장

나발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아버가일의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는 참 신앙의 표현입니다. 참 신앙이란? 첫째, 사건 속에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봅니다. 그는 다윗이 고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참 신앙은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 중심한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생명싸개의 보호를 알았습니다. 역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화 경외의 신앙 (삼상 26:1-12) 찬394장

다윗의 위대함은 경외신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태도로 보여졌습니다.

첫째, 기름 부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 진영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기름 부움에 대한 존중을 보인 것입니다. 기름 부움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경멸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됩니다. 둘째, 그에게 사울을 깨우치려는 궁휼의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는 대신 창과 물병만을 가져가므로 강박한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자극을 주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휼히 여기지 말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라갑시다.

수 원수로 복 빌게하심 (삼상 26:13-25) 찬383장

또다시 사울을 제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끄셨습니까? 첫째, 다윗의 선택. 인간적 방법을 따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한마디 말씀을 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세미

한 소리가 있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혈육의 소리를 제하고 바로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배려를 접한 사울은 일시적 감동으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원수로 복을 빌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야합니다.

목 하나님의 지혜 (삼상 27:1-28:2) 찬33장

숨 막히는 사울의 공격의 위기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사울의 단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불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단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둘째, 시굴락에 거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불레셋 진영에 들어간 다윗에게 시굴락

에 거하도록 배려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가족들이 불편했지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전조기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아기스의 환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증거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금 성경에 착념하자 (삼상 28:3-25) 찬234장

사울은 점점 수렁 속에 빠져가는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란? 첫째,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레셋의 위협 속에 두려워한 사울 왕은 여호와께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불행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둘째,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자 회개보다도 신접자를 찾아 해결하려 했습니다. 신접자를 찾은 것은 영적으로 심히 공허한 상태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마음은 자연히 악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셋째, 거짓 교훈에 현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무엇을 맞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육적 호기심에 끌리는 것보다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고 멈출 때 멈추는 성경에 착념된 마음만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토 피할 길 (삼상 29:1-11) 찬395장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 진리가 다윗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첫째, 열방에서도 여호와를 높이셨습니다. 불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린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에서 치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모면케 하셨습니다. 왕과 방백들간의 의견 충

돌로 다윗은 자기 동족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시험의 환경,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에 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도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현재의 난관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68)

주는 귀한 보배 (Jesus Priceless Treasure)

(요한 프랑크, 요한 크루거, 그리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해마다 한 해를 하나의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하여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발함을 보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2024년 올해를 '브레인 룿(Brain rot)'이라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뇌가 멎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직역하면 뇌가 손상되거나 썩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올해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을 우려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새롭게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BBC는 "브레인 룿"이란 단어를 사용한 빈도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230% 증가했다"며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서 무심코 몇 시간씩 스크롤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브레인 룿"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의 교수 심리학자인 앤드류 프레즈비츠키(Andrew Prezbylski, 1953 -)는 이 단어의 인기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증상"이라고 평했습니다. 저는 이 극히 사소하거나 그저 평범한 콘텐츠들을 무료함 속에 굶적거리는데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감을 느낍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필자는 우리의 찬송 중 마음으로 꼭 붙들고 싶은 찬송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Jesus Priceless Treasure)"입니다.

이 찬송은 작시자인 요한 프랑크(Johann Franck, 1618-1677)에 의해 16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잔혹한 전쟁 중 하나인 독일의 30년 전쟁(1618-1648)이 시작된 해에 태어나 성장 과정 속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모습, 소유물들의 손실,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종류의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업이 변호사였던 프랑크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분은 귀중한 보배"로 고백하며 그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안전과 평화, 그리고 "가장 순수한 즐거움"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영감이 넘치는 시를 1653년 그의 친구인 요한 크루거(Johann Crüger 1598-1662)가 작곡하여 1653년 루터찬 찬송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작곡자 요한 크루거는 이 소망의 시를 단조로 표현하며 역설의 소망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에서 성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나타난 기쁨과 소망을 슬픔의 멜로디로 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교회음악의 아버지라 일컫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이 곡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세 번째 모테트 "예수, 나의 기쁨" Motet e minor BWV 227 "Jesu, meine Freude", 1723)을 작곡 하여 이 곡과 텍스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임상 목사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필자는 이 찬양의 역사를 연구하며 이 곡의 작시자 요한 프랑크, 작곡자 요한 크루거, 그리고 이 곡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킨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이 세 사람이 당시 처해있던 환경, 즉, 독일의 30년 전쟁, 그 이후 당시나 오늘날의 환경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좀 다를 뿐 고통의 모습은 결국 똑같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졌던 통찰은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초월하여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탐나. 흠이 없는 어린양 그 품 안에 괴롭 없어 더 바랄 것 없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영감의 멜로디로 작곡하여 후대 크리스천들에게 남겨지게 했던 그 통찰력이 필자에게는 대단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찬양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문화를 외부 환경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사라져 버리게 하는 위험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왕 이후 부터 전통적으로 구별되어, 공공하게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정한 찬양대 문화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찬양대가 예배 이후 연습하러 들어가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찬양대를 없애게 되었다는 조국 대한민국에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며 필자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43:2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찬송에는 이런 오래된 찬송가 "주는 귀한 보배(Jesus Priceless Treasure)"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놀람도록 변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 세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통찰력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빠르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임을 확인하며 예배와 찬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일구어 놓은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부모와 조상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한글 가죽,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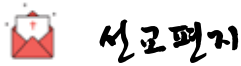
모든지점 - 대형 파랑차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퍼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윗지점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태국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저물어가는 12월 끝자락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주님 탄생하신 기쁨과 평안이 귀 가정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재활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느끼고 성숙을 향해 나가는 한해였습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사랑과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며 회복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직 계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더 해야겠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

저희는 지난 11월 15일 태국에 약 1달간 입국하여 여러가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6부터 4일간 은행의 급한 업무를 처리했고, 11월 24일 저희가 속해 있는 태국기독교총회 제7 노회의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1월 25-26일 저희와 함께 개척한 현지인 사역자 약 20명이 홍콩중앙교회 이홍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신영선 선교사가 동역하며 구약 파노라마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1월 22일은 새로 개척할 방우아-방빠꽁지역 (방콕에서 50키로 떨어져있는)을 감사하였습니다.

12월 1일 에벡교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탄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

이 30명 정도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참석하였으며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와 연합하여 워십댄스와 천지창조를 무연극등으로 성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12월 4-5일 에벡교회 교인17명이 저희 집에 캐롤송을하며 방문하여 1박2일로 예배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5일 BIT 전학생들과 교직원이 한인식당 초청으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8일 선교부 17교회 개척교회 사역자 가정을 초대하고 저희 선교부 선교사와 함께 약 40명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식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에벡교회 건물주가 예배 장소 건물을 판매하기로 하여 내년 5월 안에

는 교회 이전을 해야 합니다. 18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가지 사역을 마친 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며칠 전 한국에 들어와 12월 17일 보바스 재활병원에 입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다가 태국 비자를 받기 위해 2025년 2월 초에 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1. 에벡교회 이전과 적합한 장소를 찾을수 있도록
 2. 신영선 선교사 재활에 회복이 잘 이뤄지도록
 3. 18번째 개척할 교회 지역 탐색과 사역자 "위라야"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파이 탄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라오스 국경 근처 베트남 북부에 살며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른다. 정령을 숭배하는 이들의 고유 종교는 제물을 바치면 평화를 유지하고 행운을 얻지만 바치지 않으면 가족이나 농작물이 큰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 녹음, 예수 영화, 자신의 말로 된 성경 말씀 등의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 기도제목
1. 파이 탄족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2. 성경 번역과 함께 복음 녹음, 예수 영화 더빙 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3. 믿음공동체가 제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36



눈물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오래 전 한국의 한 기독교 월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기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인터뷰 때 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잊고 있었다. 책이 나왔을 때 목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기사의 타이틀은 나를 놀라게 했다. 비슷한 이야기는 했겠지만 타이틀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렇게 말했던가? 그렇다면 지난간 나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던가?

평생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여인이 있었다. 정서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도 아니다. 쇼렌증후군이란 질병인데 이 병은 연유를 알 수 없고 현상을 말하면 몸속의 항체들이 그녀의 눈물샘을 몸에 침입한 이물질로 간주하고 눈물

샘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별의별 병도 다 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 눈물이 있는가? 지난 번 클리넥스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눈물이 없고 이론과 코미디만 있는 설교와 목회 아닐까? 교회도 쇼렌증후군을 앓고 있는가? 설교만 아니라 부흥회를 해도 눈물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니 글의 타이

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말씀 앞에서 찬송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다 눈물을 흘리자. 나 역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한다.

revpeterk@hot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⑥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⑥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⑥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⑥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⑥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6(Mon)~27(Tue), 2025
- b)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본지가 보도한 2024년 10대뉴스

[편집자 주] 2024년은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한 해였다. 본지는 올 한 해 독자들과 함께 크리스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문서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송년호에서는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다시 한 번 그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

(1970호 6월1일 1면, 10면)

제48회 미주한인장로회(KAPC 총회장 김성국 목사)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는 주제로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총회장 권혁천 목사를 선출했다. 권혁천 총회장은 “총회장으로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48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한 회기 잘 감당하겠다.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드려

(1959호 3월2일 10면)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예배가 2월25일(주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 모든 다민족 성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드려졌다. 김성국 목사 인도로 시작된 50주년 회년 감사예배는 정성호 장로 기도와 송요한 목사(러시아어 예배부)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빌립보서 1:3-6)”라는 주제로 “성전 건축에도 처음과 끝이 있듯이 지난 50년에 첫출발이 있었고, 이제 5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으며 앞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갈 시간이 됐다. 우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항상 곁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항상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전했다. 퀸즈장로교회는 1973년 고 장영춘 목사가 브루클린에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돼, 1974년 퀸즈 플러스에 60여명이 모여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1981년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1983년 설립 9주년 및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1987년에는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고 있으며 1992년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를 통한 문서선교 사역을 시작하며 미 동부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개혁주의 교회로 성장해왔다.



3. 제10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성황리에 열려

(1975호 7월13일 1면, 9면)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대표의장 이승종 목사,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주최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예수, 구원의 그 이름’(행 4:12)이라는 주제로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람의교회(노창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석희 목사는 “제10차 KWMC한인세계선교대회에 5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며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전파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던져 분골쇄신하는 2만9천여명의 고귀한 선교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선교사들과 MK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 Time to Stand... “동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

(1962호 3월23일 11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Time to Stand 집회가 ‘Save our Children’이라는 주제로 16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TVNEXT.org(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Gen: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사모)와 Make California Gold Again - Sarah Stephens) 두 단체가 공동 주최한 행사이며, 그 외 20여개가 넘는 다민족 단체 리더들이 협력하

여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 될 행사에는 이미 12시부터 200여 명이 넘는 다민족 단체들과 한인 교회에서 협력자들이 나와 부스를 만들며 행사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대선 때 나오는 candidate(크리스천)들도 수십명 참석하여 Protect Kids of CA ACT 운동을 격려하며 응원했다. TVNext 새라 김 대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잘 이겨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집회를 위해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경 LGBTQ단체 20여명이 집회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스크와 복면을 하고 나타나 집회장소인 주님의영광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 행사를 방해하지 못했다.



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로 기도회

(1992호 11월 9일 1면, 11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권혁천 목사)는 목사장로 기도회를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딤후 4:5)’는 주제로 4일(월)부터 7일(목)까지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장 권혁천 목사(북가주)가 ‘하나님을 더하자(민 14:4-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혁천 목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 것에 대한 보고는 다른 10명과 다르지 않았다. 믿음은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는 기도이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는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있다.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목사장로 기도회로 모인 이유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실을 이겨낼 것이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강연회

(1961호 3월16일 9면)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이지성 작가의 특별강연회가 5일(화) 오후 7시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 작가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다 왕이 눈앞이 밝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터에는 현재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김씨 부자의 신격화를 통한 우상숭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불수교회의 예배 참석한 목회자의 영상을 보여주며 “북한 불수교회에서는 예배의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김일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에서 불수교회 목회자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지성 작가는 “북한의 많은 아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지만 평양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유는 김일성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북한은 우상국가이다. 우상국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2024 다민족 연합 기도회 성료

(1986호 9월 28일 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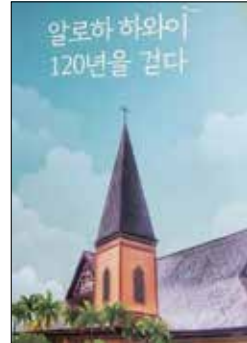
2024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Seek His Face’라는 주제로 2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기홍 목사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미국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성경의 기초위에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미국이 세계 기독교와 경제를 이끌도록 축복하셨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군대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삼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말했다.

8.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알로하 하와이 120년을 걷다’ 출간

(1957호 2월17일 9면)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인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한의준)는 최근 ‘알로하 하와이 120년을 걷다’를 출간했다. 99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이 교회 교회사 사역부장인 신찬재 권사(영어이름 찰스 신)가 엮은 책으로 구한말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교회의 설립, 유적지 사진 등이 담겨 있다. 부제는 ‘하와이 한인 이민 사적지 since 1903’으로 감수는 하와이한인이민연구소 소장 이덕희 권사가 맡았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책의 추천사를 통해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역사의 뿌리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한인이민교회의 신앙의 요람”이라고 말하고 “고달픈 이민자의 한숨과 눈물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지켜 교회를 세우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신앙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역사책”이라고 말했다.



9. 지앤컴리서치,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사역자 의식조사

(1967호 5월4일 11면)

‘10년 후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이며 쇠퇴이유는 유학생과 이민자의 감소와 더불어 교회의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TS아메리카(대표 감덕규 목사)와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그리고 AEU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컴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12일까지 미주지역의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아틀란타의 67개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9세 이상 개신교인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사역자 의식조사에서 한인교회의 쇠퇴이유는 ‘유학생 포함 이민자 감소와 교회의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로 조사되었다. 지용근 대표는 “미주한인교회의 쇠퇴이유는 유학생을 비롯한 이민자 감소(25.5%)와 함께 교회의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21.1%)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한인사회는 교회중심으로 움직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민사회에서 교회출석 인구는 10%정도”라 말했다. 또한 “교인들의 신앙의 약화(19.7%), 세속화(17.9%), 권위주의적, 수직적 리더십 문화(11.7%)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대표는 “KM과 EM 포함 한인교회는 전체적으로 미래가 긍정적이었으며 다인종 수용교회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왔다. 향후 EM사역에 대해서는 아시안인 중심의 다인종 화동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50.6%,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22.9%, 점진적으로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이 9.6%였다”라고 말했다.



10. 뉴욕장로연합회,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 2024

(1985호 9월 21일 10면)

뉴욕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를 9월 15일(주일) 오후 5시에 다민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Be aware of the changes in the world!)”를 주제로 개최했다.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황규복 장로는 대회를 통해 “세상이 너무 급속히 타락해 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바로 선교지이다.”라고 전하며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선언했다. 황 장로는 2022년 9차 대회 때 니카라과 어린이 선교사역 지원, 10차 대회 때 우간다 우물 사역 지원,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 지원 등 지금까지 선교대회를 통해 진행해 온 선교 사역의 성과를 발표했다.